

천당은 잠을 안 자는 지극히 행복한 세계

희생적인 생활을 점점 늘려가야 하나님으로 변화된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입니다. 여기 이 꽃나무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신입니다. 꽃도 하나님이 죽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로 사랑의 신을 여러분들이 없애려면 사랑의 신을 죽이는 무기인 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 꽃 속에 있는 마귀도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 죽이는 무기를 다 갖는다고 이것 써 먹지도 않아요. 몇 번하다가 힘들면 '에이, 그만 하자!' 그래 버려. 이런 걸 보고 있을 때에 참말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세주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죽어가는 만물도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널리널리 나가서 알려주고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승리제단이 이제 세계만방에 알려지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조상의 영이 자신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대대로 조상님들의 영들이 다 영생을 같이 얻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돌아가신 조상님들 영들이 내 속에 있는고로 같이 하나님이 되니까 효도 중에 효도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만날 제삿장 차려놓고 사과, 배 많이 깎아놓고 이러는데, 죽은 사람의 영이 와서 먹어요? 못 먹습니다. 산 사람이 먹으면 조상이 먹는 겁니다. 산 사람이 잘 먹고 건강하면

조상이 먹고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면 산 사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분신이 들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말할 때에 벌써 '아하, 네 몸이 내 몸이로구나! 하나님의 몸이 내 몸이로구나! 내 몸이 하나님 몸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정상입니다.

죽는 원인을 알면 안 죽는다

사람이 죽는 원인을 알면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나라는 의식이 육신을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정욕을 부린다든지 등등 육망에 의해서 살게 되면 피가 푹푹 썩어요. 그래서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니까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생기죠? 병균이 번식을 하니까 이런 병, 저런 병이 다 걸리게 되죠? 그래서 몸뚱어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썩어서 썩기 시작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조금씩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행복은 없다

사람마다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날이나 날까, 저 날이나 날까? 내일이 날까, 모레나 날까? 하고서 속아서 살고 있죠? 행복을 누리본 사람은 6천년 이래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암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요,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권력이 있



구세주 조희성님

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이 기쁘고 즐겁고 희열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언젠는 기뻐다가 언젠는 슬펐다가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할 수 없이 희열이 차고 넘쳐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영원무궁토록 기쁘고 기쁘고 기뻐다가 근심 걱정했다가 하는 건 이런

행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바로 고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날이 되면 이제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잠을 안 자요. 너무 피로하니까 사람이 잠을 자죠? 그날이 되면 사람이 피로한 걸 몰라요. 암만 힘든 일을 해도 몸이 가볍고 힘든 걸 몰라요. 천당이라는 곳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에요.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다.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구세주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었다는 증거들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인간의 조상 하나님의 피가 후손 속에 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걸, 싫어하죠? 고통을 모르고, 힘들 걸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는 그러한 조상의 하나님의 피가 후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결국은 죽어요.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마귀 안에서 행하면 피가 썩게 되어 있어요.

희생 생활 점점 늘려가야 영생한다

피가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희생의 영이에요. 양심은 항상 희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웃으면서 항상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희생하는 그 정도도 처음에는 약 심 분지 일씩 하나님한테 기울이다가, 그 다음에 심 분지 이 그 다음에 심 분지 삼, 심 분지 오,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그 정도껏 피가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못하면 그대

로 항상 마귀로 있다가 지옥에 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새출발을 해야 되겠죠?

불경 열반경 23권에 뭐라고 써여 있느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본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사람의 몸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이 사람의 본심이 움직이는 걸 보여줬죠? 충청도에서 '가자, 가자'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사방에서 전부 '가자, 가자' 해서 이리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로 살아야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기 없다고 해서 예배도 안 보고 그러면 그건 지옥 가죠? 매일 예배를 봐야 그래야 피가 맑아지고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서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 노력을 해가지고 될까?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길은 각자가 가는 길이야. 이 길을 갈 때에 옆으로 보면 안 돼요. 옆을 보거나 뒤를 봐도 안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 아시겠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지 옆 사람이 전대대로 이빨을 쑤시건 말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이 죄를 짓던 말든, 상관할 것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요. 그래야만 이 길을 가지, 옆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나도 뭐 죄 지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2000년 11월 14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세계적인 세포·노화학자들의 깊은 고민, 세포는 매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데 왜 자꾸만 늙어갈까?

알면 쉽고, 모르면 도대체 모르는 것이 진리(眞理)다. 승리제단의 영생학회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진리를 공기를 호흡하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합리적인 논리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노화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기능의 쇠퇴를 의미한다. 생물학적인 기능의 쇠퇴란, 곧 세포 활동의 쇠퇴를 의미하고, 세포 활동의 쇠퇴란, 곧 세포분열이 저조하여 '세포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체의 기관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 조성이 충실치 못하여 세포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그 생기 넘치던 피부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뼈세포의 수가 줄어 잘 부러지고, 뇌신경세포의 수가 줄어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바로 노화란, 젊었을 때에 비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젊었을 때 신장보다도 줄게 되는 이유이다. 세포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신체의 기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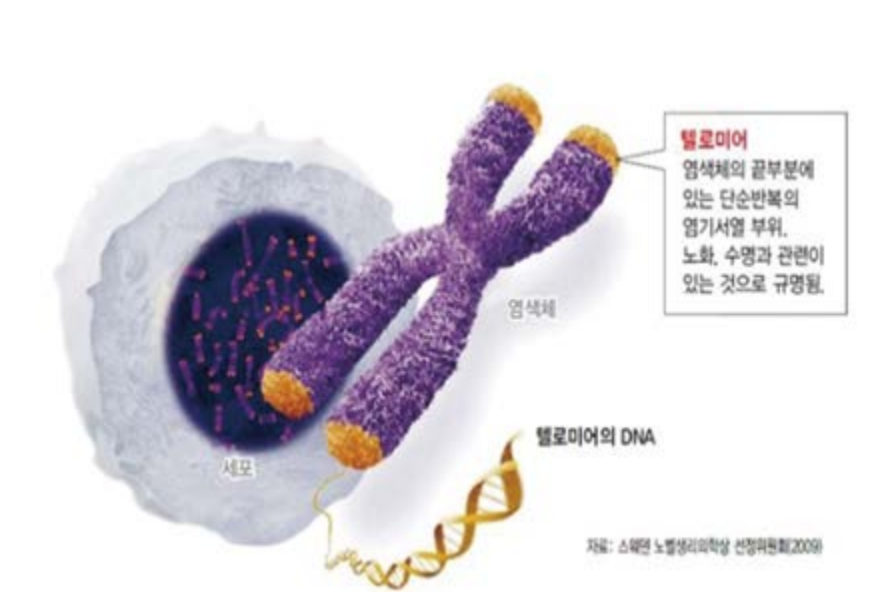
쇠퇴하고 질병의 위험은 높아져서 결국 세포수의 감소는 노화를 초래하고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놀라우리만치 정밀한 인체는 자동보수장치와도 같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수의 감소로 그 기능은 점차로 저하되어 늙어간다.

세포 감소의 원인

왜 세포수는 점차로 감소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인체의 생명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기능과 조직을 갖추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듯이, 하나의 세포 또한 모든 기능과 조직을 갖추고 각기 다른 역할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필수 요소인 피가 돌지 못하면 곧 멈추게 된다. 이렇게 세포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가 에너지 정보 각종 영양소 산소 등등의 것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피가 결핍하게 탁해지거나 오염된 물질로 가득하거나, 또 이 피를 이동시키는 심장의 박동, 혈관의 좁아짐, 피의 오염이 발생하여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이상 반응(세포의 재생과

노화와 죽음의 근본적 원인: 피의 산화(썩음)4



분열에 손상이 문제)이 감지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건강의 중요한 척도의 첫째가 피를 검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피가 탁해지거나 피가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피가 부족하다면 우리 몸에 각종 이상증상으로 유발된다. 이처럼 피를 보내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피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결코 감소되지 않고 건강하게 제 기능과 역할을 하여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세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싶어도 위에서 말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이 없다.

그렇다면 피가 썩거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가 이동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인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이 인체에 여러 다양한 증상으로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들여다보자.

피의 오염과 순환의 현상이 미미할 때는 어거 결림, 담, 요통, 현기증, 숨가쁨, 두통, 권태감 등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을 일으키고 신체 일정 부분에 수심, 저림, 시림, 쥐, 부종, 통증, 무감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점점 심해지면 소화불량, 불면증, 무중, 치질,

변비, 피로, 뇌졸중, 고혈압 등 많은 질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어떤 요인으로 인해 피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를 더 방치할 때는 큰 병과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인체는 피가 썩어 순환이 안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조직과 기관의 기능은 쇠퇴하게 된다. 새로운 세포는 다시 조성될 수 없게 되면서 세포의 감소현상 또한 일어난다. 이처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을 모르고서 쉽사리 약 처방에 의지하는 것은 연못의 오염 원인을 모르고 무조건 연못을 정화시키는 약을 뿌려대어 결과적으로 모든 생물들을 죽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피를 썩히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내부적인 요인으로 마음과 생각에 의한 정신작용이다. 그 내용으로는 지나친 기쁨, 성냄, 근심, 슬픔, 그릇된 생각, 두려움, 놀람 욕심 등의 감정표현을 말한다. 사람들은 매일 매일 이러한 감정표현을 심없이 함으로써 피의 산화, 피의 불통, 피의 오염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의 오물과 쓰레기가 핏속에 녹아들어 다양한 병증

과 병환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외부적인 요인으로 호흡하는 공기와 주변환경의 상태이다. 이 둘의 포괄적 의미로 크게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후를 말하기도 한다. 바람의 기운, 추위의 기운, 더위의 기운, 습한 기운, 건조한 기운, 불의 기운이 몸에 들어와 피를 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마음만큼 생명에 크게 영향을 주는 데는 비교불가다. 예를 들어 마음을 한순간 잘못 먹으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살행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이 절대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그 마음의 중요성을 알지만, 과연 어떠한 마음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썩히고 죽이는 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뒷전으로 하는 일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의 쇠병사장(衰病死藥)과 수명(壽命)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원리와 이치를 전연 모르고 있다. 오래토록 신비에 쌓인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진실을 다음 호부터 세밀히 파헤쳐 보자.*

김주호 기자